

전국 최초 '해양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 구축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1년
'안전 이상 無' 믿고 먹는 전남 수산물

〈3〉해수 방사능 전방위 감시 체계

지난해 완도 여서도항 최초 설치...올해 3곳 추가
검사시간 4일→12시간 대폭 단축 정밀 측정 장비
연안·원근해 총 68개 정점 전문기관 방사능 검사

바다는 오염수 유입과 이에 따른 피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초 관문이자 핵심 자원이다. 전남도는 '청정 바다' 수식에 걸맞은 해양 환경·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해수 감시 강화와 철저한 방사능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사업은 전국 최초로 구축한 해양 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이다. 해양 방사능 연속 감시 장비는 액체섬광스펙트로미터와 섬광검출기를 활용, 해수 중 삼중수소(베타)와 세슘(감마) 등을

검출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해수 방사능 분석은 바닷물을 채취해 육지 분석실로 옮긴 뒤 측정하는 방식이다. 시료 채취와 측정이 공간적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큼 실시간 방사능 농도를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전남도는 해양방사능 연속 감시 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 4일 가량 걸리던 해수 전처리 분석 시간을 12시간에 한 번씩 하루 2회 검사할 수 있도록 대폭 단축했다.



전남도기 전방위 해수 방사능 감시망 구축 등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완도 여서도항에 설치된 해양방사능 연속 감시 장비. <전남도 제공>

특히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방사선량만 확인 가능한 선박탐지형과 세슘만 측정할 수 있는 고정형 무인감시장비와 비교할 때 정확한 측정이 감정이 다. 이 장비는 세슘 0.1베크렐(Bq), 삼중수소 10베크렐(Bq)까지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사·군 수요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지난해 9월 완도군을 선정하고 장비 시험인증을 거쳐 같은 해 12월 완도군 여서도항에 시범 설치를 완료했다. 완도군 여서도항은 전남 해역 중 가장 먼저 방류 오염수가 도달하는 곳이다. 전남도는 총 11억5천500만원의 도비와 시·군비를 추가 투입해 올해 안에 보성 득량면, 해남 송지면, 무안 해제면 등

3곳에 해양방사능 연속 감시 장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 방사능 조사 정점 검사 또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 원자력안전위 등 전문기관이 전남 연안 해역 50개, 원근해 해역 11개, 한빛원전(한빛원전 취·배수구, 영광 홍농읍, 무안 현경면) 3개 등 총 68개 정점에 대해 해수 방사능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도 올해 여수(화성), 고흥(우두), 보성(득량), 신안(압해) 등 4개 조사 정점에서 총 도비 5천만원을 투입, 해수 48건, 퇴적물 16건에 대해 감마핵종 41종, 삼중수소 등 총 42종 방사성물질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감마핵종 4대, 베타핵종 1대 등 하루 최대 27건의 분석 능력을 갖춘 방사능 검사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감마핵종 분석기 2대를 보유 중인 보건환경연구원도 베타핵

종·감마핵종 분석 장비를 1대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이 방사능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6월24일까지 총 3천58건의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이 같은 감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표, 도민이 어디서든 편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마난류 저류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최남단 여서도에 전국 최초로 삼중수소와 세슘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해수방사능 연속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모니터링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방위적인 해수 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보건환경연구원 등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원기자

광주시, 추석 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비상진료·감염병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46개 과제

광주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폭염·태풍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20콜센터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응급 의료기관 운영 현황, LPG가스 공급 감소 현황, 민원 서류 발급기 현황 등을 안내한다.

종합대책은 18일까지 3주간 ▲시민 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6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민생활안정 대책 분야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 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의 이웃 지원 ▲수돗물·연료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자강 확립 등 6개 항목 35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지원 15번, 용전 86번, 518번은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 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 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위기 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며, 취약노인·장애인·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 체계 유지 ▲감염병·식중독 예방 대책 등 2개 항목 5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명절 기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 의료기관 26개소와 문어는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 심야·달빛어

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자정까지 운영하며 광주센트럴병원은 14일은 오후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물가 안정대책 분야는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 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6개 세부 과제를 시



'미리 성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8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를 찾은 한 가족이 당일 혼잡을 피해 미리 성묘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행한다. 물가 상승 우려 높은 품목 가격표시제 실행 점검 등을 통해 추석 명절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 시장 이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박선강기자

'광주 청년정책 서포터즈' 등 시, 우수 청년정책 6건 선정

광주시는 8일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 3차 전체 회의를 열어 제9기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청년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청년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경제·일자리, 교육·진로, 문화·삶의 질, 참여·홍보 등 4개 분과 활동과 다른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총 32건의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2건의 정책 가운데 서류·대면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우수 정책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정수연 위원) ▲광주 빛빛특과원(정정현 위원) ▲8세 미만 자녀 부모 주 1회 1시간 단속근로 독려(유명준 위원) ▲고립청년 일자리 사업, 경계선 지능 청년 일경험 사업(장희재 위원) ▲광주 청년정책 서포터즈, 드리머(참여홍보 분과) 등이다.

특히 광주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 운영 사업인 '광주 청년정책 서포터즈, 드리머'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박선강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	--	---	--	--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